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6. 06. ~ 06. 12.

전남농업정보

88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쌀·콩 재배 동향 및 가격 전망
- 감자(수미)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담양『죽향』 딸기 국외 시험재배 시도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보성 청년농부, 방울토마토 생산비 25% 절감에 도전한다
- 콩 생산비 절감 모델 실증 추진

정책동향

-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24일까지 연장
- 때 이른 폭염,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대책 준수 당부

해외농업정보

- 전남도 육성 '해금' 골드키위 해외에서 시험재배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3~7mm)보다 적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 ▶ 예 보 : 과수 잎말이나방, 심식나방, 진딧물 등

☼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9

- ▶ 쌀 · 콩 재배 동향 및 가격 전망
- ▶ 감자(수미)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5

- ▶ 나주시, '무논점과 재배' 못자리 벼농사 시대를 열다
- ▶ 담양군, 벼 병해충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 ▶ 고흥군, 쌀 귀리 수확 본격... 농가소득 한몫
- ▶ 화순군, (주)포프리와 523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 ▶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쌀
- ▶ 해남군,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노지채소 품질향상
- ▶ 장성군, 영양듬뿍 액상규산으로 고품질 쌀 키운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2

- ▶ 담양『죽향』 딸기 국외 시험재배 시도
- ▶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5

- ▶ 전남지역 시설재배 수국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관리 요령
- ▶ 녹두·황금·방풍·아스파라거스를 가해하는 해충종류 정보제공
- ▶ 국내 육성 딸기 '설향' 보급료 성능 효과
- ▶ 연중 생산을 위한 무가온 하우스 재배 작형별 단호박 점목료 정식시기
- ▶ 보성 청년농부, 방울토마토 생산비 25% 절감에 도전한다
- ▶ 콩 생산비 절감 모델 실증 추진
- ▶ 잎나물용 식방풍 연중생산 유기재배법 개발
- ▶ 농촌진흥청, 버려지는 감자 부산물로 한우 육량 늘린다
- ▶ 복숭아 관리 병해인 탄저병 주의하세요
- ▶ 배 봉지 씌우기 전 병해충 방제해야

❀ 정책 동향 41

- ▶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24일까지 연장
- ▶ 읍·면·동 단위 지역 농업정보를 한 눈에
- ▶ 때 이른 폭염,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대책 준수 당부

❀ 해외 농업정보 46

- ▶ 전남도 육성 '해금' 골드키위 해외에서 시험재배
- ▶ 안전관리 역량 전수로 농식품 한류 이끈다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6. 06.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현물 이자율과 함께 4번째 장까지 연속적으로 가격이 올랐음.
 - 옥수수 : 높은 기술적 매수와 이번 주간 미국 중서부 지역의 덥고 건조한 날씨에 대한 염려 그리고 높은 수출 수요로 인해 옥수수 선물가격은 상승하였음.
 - 대두 : 증가된 수출 수요의 높은 기대치는 남아메리카 대두 공급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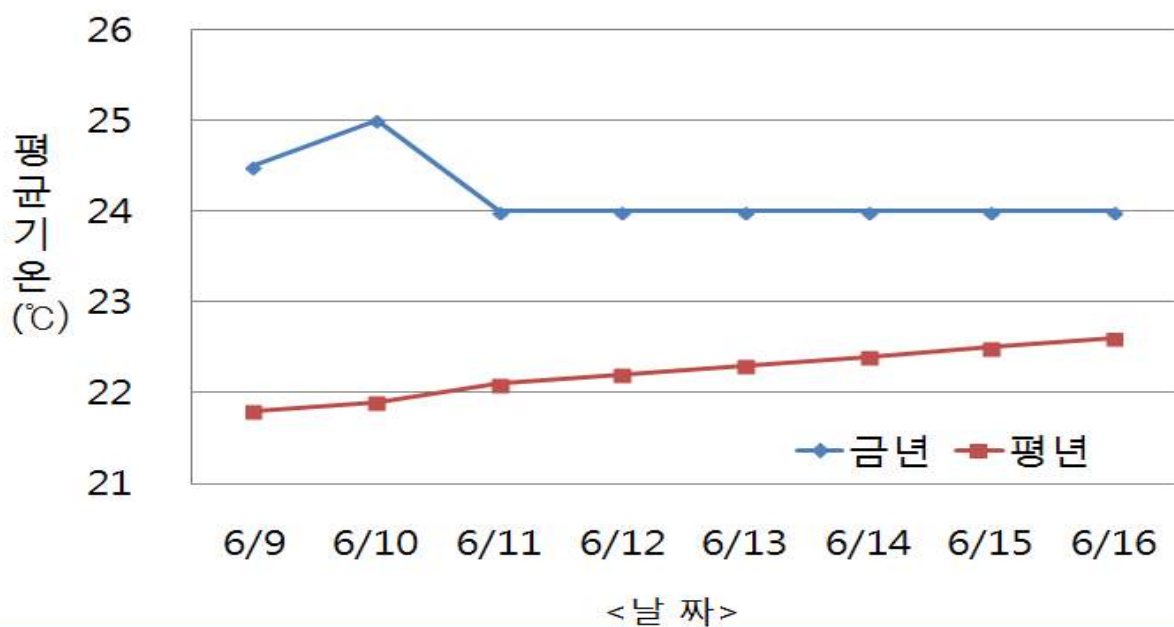
- ▶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2	22.2	2.0	29.4	27.6	1.8	19.0	17.8	1.2	3.7
6. 09.(목)	24.5	21.8	2.7	30.0	27.3	2.7	19.0	17.2	1.8	4.4
6. 10.(금)	25.0	21.9	3.1	31.0	27.3	3.7	19.0	17.4	1.6	3.8
6. 11.(토)	24.0	22.1	1.9	29.0	27.5	1.5	19.0	17.6	1.4	3.7
6. 12.(일)	24.0	22.2	1.8	29.0	27.6	1.4	19.0	17.7	1.3	3.9
6. 13.(월)	24.0	22.3	1.7	29.0	27.6	1.4	19.0	17.9	1.1	2.9
6. 14.(화)	24.0	22.4	1.6	29.0	27.7	1.3	19.0	17.9	1.1	3.1
6. 15.(수)	24.0	22.5	1.5	29.0	27.8	1.2	19.0	18.1	0.9	3.7
6. 16.(목)	24.0	22.6	1.4	29.0	27.9	1.1	19.0	18.3	0.7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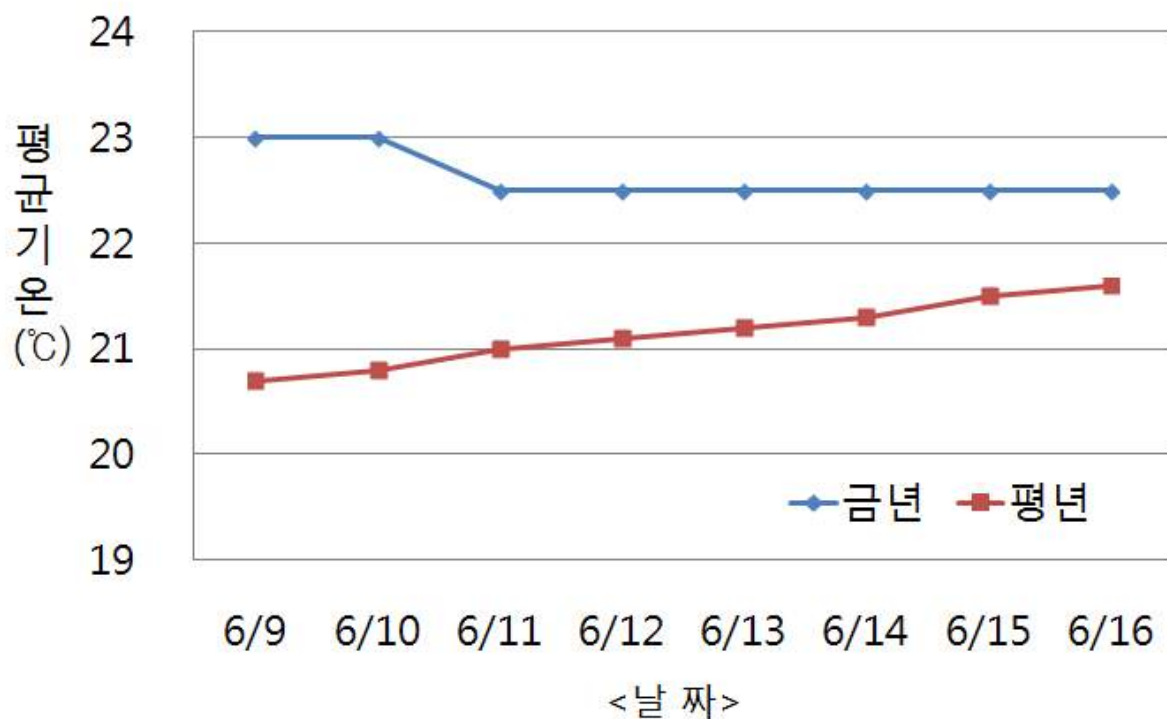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6	21.2	1.5	26.3	25.6	0.6	19.0	17.7	1.3	3.5
6. 09.(목)	23.0	20.7	2.3	27.0	25.3	1.7	19.0	17.2	1.8	4.6
6. 10.(금)	23.0	20.8	2.2	27.0	25.3	1.7	19.0	17.4	1.6	3.9
6. 11.(토)	22.5	21.0	1.5	26.0	25.5	0.5	19.0	17.6	1.4	3.4
6. 12.(일)	22.5	21.1	1.4	26.0	25.6	0.4	19.0	17.7	1.3	3.4
6. 13.(월)	22.5	21.2	1.3	26.0	25.6	0.4	19.0	17.8	1.2	2.7
6. 14.(화)	22.5	21.3	1.2	26.0	25.7	0.3	19.0	17.9	1.1	2.8
6. 15.(수)	22.5	21.5	1.0	26.0	26.0	0.0	19.0	18.0	1.0	3.3
6. 16.(목)	22.5	21.6	0.9	26.0	26.1	-0.1	19.0	18.2	0.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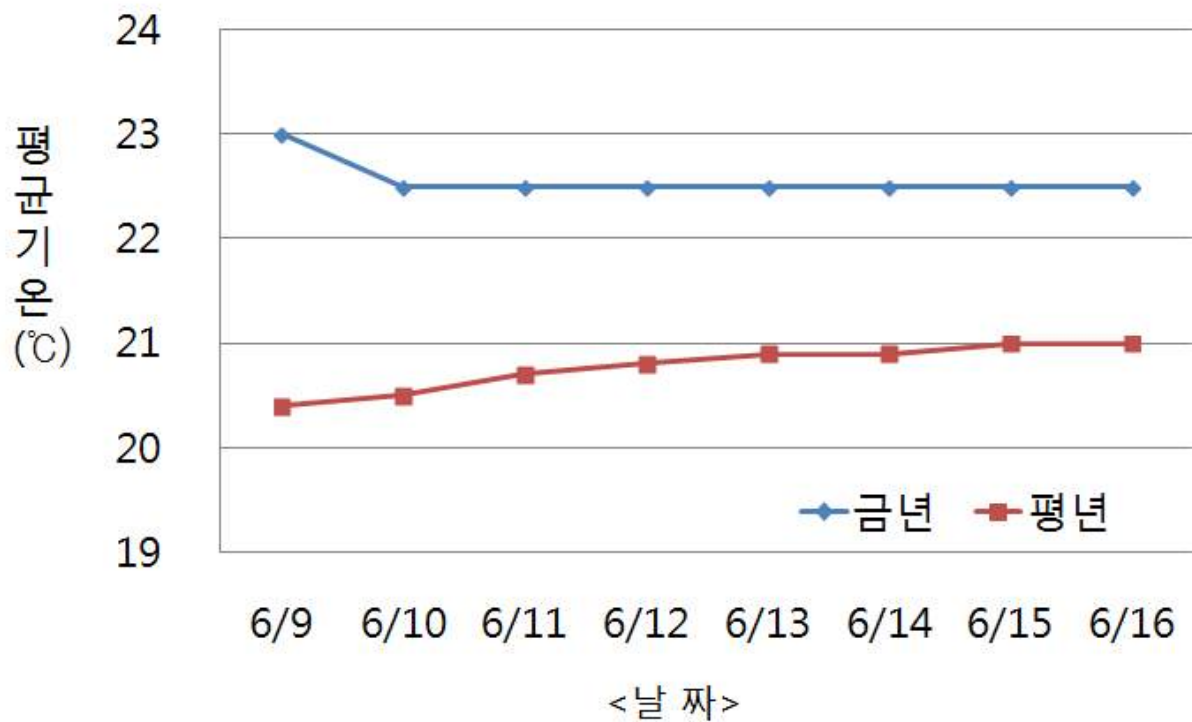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6	20.8	1.8	25.1	24.3	0.8	20.0	18.1	1.9	4.9
6. 09.(목)	23.0	20.4	2.6	26.0	23.9	2.1	20.0	17.6	2.4	4.4
6. 10.(금)	22.5	20.5	2.0	25.0	23.9	1.1	20.0	17.8	2.2	4.4
6. 11.(토)	22.5	20.7	1.8	25.0	24.3	0.7	20.0	18.0	2.0	4.3
6. 12.(일)	22.5	20.8	1.7	25.0	24.4	0.6	20.0	18.1	1.9	4.8
6. 13.(월)	22.5	20.9	1.6	25.0	24.4	0.6	20.0	18.2	1.8	4.2
6. 14.(화)	22.5	20.9	1.6	25.0	24.4	0.6	20.0	18.2	1.8	5.0
6. 15.(수)	22.5	21.0	1.5	25.0	24.5	0.5	20.0	18.3	1.7	5.6
6. 16.(목)	22.5	21.0	1.5	25.0	24.5	0.5	20.0	18.4	1.6	6.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6. 6. 1. ~ 6. 15.)

농촌진흥청은 과수 병해충, 벼 애벌레, 저온성 해충, 채소류 탄저병, 역병 등의 병해충에 대한 발생 정보를 발표하오니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 발생이 빠르고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찰

□ 예보 : 과수 잎말이나방, 심식나방, 진딧물 등

○ 성페로몬트랩 등 활용 정밀 예찰, 발생 초기 방제

□ 예보 : 과수 검은별무늬병, 갈생무늬병, 세균성구멍병 등

○ 예방 위주의 사전 방제(봉지씌우기 전 중점 방제) 실시

□ 예보 : 벼물바구미, 멸강나방, 애벌레 등

○ 육묘 시 방충망 등으로 애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이앙 당일 상자에 입제 농약을 뿌려 벼물바구미, 벼잎벌레, 잎도열병 등을 동시에 방제한 후 모내기

□ 검역병해충 : 사과·배 화상병, 참다래 궤양병 등

○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지씌우기 작업, 전정 작업 시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외부로 유출 금지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쌀 재배 동향 및 가격 전망

- 추가 시장격리 이후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 전년보다 감소
 - 3월 말 실시된 추가 시장격리로 인해 2016년 4월말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은 전년 대비 2.3%(1만 9천톤) 감소한 81만 5천톤
 -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6년 4월 말 농가 재고량은 전년 대비 35.8%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장격리를 비롯한 정부매입 물량과 산지 유통업체 판매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임.
- 2016년산 벼 재배의향 면적 전년대비 3.1% 감소
 - 2016년산 벼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3.1% 줄어든 77만 5천 ha로 이는 지난 4월 조사치(-2.3%)보다 0.8%p 더 하락한 수준으로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는 영남이 전년 대비 3.2%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고, 호남이 3%, 충청과 강원·경기가 각각 2.8, 2.5% 감소
- 향후 쌀 가격 강보합세 전망
 - 추가 시장격리로 2016양곡연도 연간 시장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지만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단경기 가격은 전년 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추가 시장격리로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부담이 완화되고 2015년산 재고소진 시기도 전년보다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쌀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강보합세가 예상
 - 2016양곡연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대비 8.7%, 수확기 대비 4.1% 하락한 20kg 기준 3만 6,500원 내외로 전망

콩 재배 동향 및 가격 전망

□ 정부보급종 콩 종자 공급량 전년 대비 8.6% 증가

- 2016년 정부보급종 전체 콩 종자 공급량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1,062톤이며, 두부 및 장류용 종자 공급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874톤, 콩나물용 종자 공급량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87톤, 지난해 신청량이 없었던 밥밀용 콩 종자 공급량 0.4톤

□ 2016년 콩 재배의향면적 6만 9,249ha

- 2016년 전체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평년 대비 10.2% 감소한 6만 9,249ha로 조사되었으며, 밭 콩은 평년 대비 10.7% 감소한 5만 9,069ha, 논 콩은 10.2% 감소한 10,180ha로 나타남.
- 국산 콩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콩 대체작목인 율무·들깨 등 잡곡 가격 하락으로 콩 재배의향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확대로 벼 재배면적이 일부 콩으로 전환되면서 논 콩 면적이 늘어날 전망
- 3년 연속 콩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으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되면서 금년 콩 재배의향 면적은 평년 대비 감소

□ 2015년산 재고 소진 중이나 정부수매 콩 시장 방출로 가격 약보합세 예상

- 2015년산 재고는 소진되었으나 경기침체로 국산 콩 수요 감소로 거래물량이 많지 않고, 2013년산과 2014년산 정부수매 콩이 시장에 방출됨에 따라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지난 4월부터 정부수매 콩이 판매되고 있으나 향후 공매가격 하락 기대감으로 수요처들이 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아 판매실적이 저조

감자(수미)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생산전망 : 노지봄감자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노지봄감자 생산량은 41만 9천톤으로 평년 대비 4% 감소하나, 작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감자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작년 대비 10% 증가한 16,003ha로 조사되었다.
- 노지봄감자 단수는 작년과 평년 대비 각각 4, 5% 증가한 2,619kg/10a으로 추정된다. 전남과 경남은 잦은 비로 인한 습해로 작년보다 각각 7, 2% 감소하나, 경기·충청·경북 등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하전망 : 6월 감자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 6월 감자 출하량은 노지봄감자 생산량 증가로 작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출하면적은 노지봄감자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작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단수는 상순에 출하가 마무리 되는 전남 작황은 부진하나, 충남 서산·당진·경북 구미 등 주산지 작황이 양호하여 작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출하량은 노지봄감자와 준고랭지감자 출하량 증가로 작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기상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가격전망 : 6월 가격 작년 대비 하락 전망

- 6월 감자(수미) 상품 2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노지봄감자 출하량 증가로 작년(상품 26,700원)과 평년(상품 21,920원)보다 낮은 18,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노지봄감자 저장량이 증가하여 출하량 조절로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7월 감자(수미) 상품 20kg당 평균 도매가격은 노지봄감자와 준고랭지감자 출하량 증가로 작년(상품 21,57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20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상품	26,567	30,658	33,688	35,925	30,903							
	중품	21,005	22,620	22,482	21,585	19,838							
2015	상품	23,617	32,393	41,410	49,559	49,050	26,696	21,570	21,680	20,133	20,683	24,338	24,668
	중품	18,786	25,558	25,816	33,692	34,435	21,595	17,482	17,743	17,208	16,522	18,993	19,186
2014	상품	16,788	16,113	22,555	22,295	26,050	17,071	18,083	19,792	17,924	16,105	18,551	20,677
	중품	9,652	7,752	8,514	10,464	16,777	14,359	13,546	15,641	14,125	13,047	14,103	15,312
평년	상품	25,780	28,553	31,759	37,226	34,299	21,919	19,500	22,071	21,191	20,450	22,103	25,106
	중품	19,493	21,011	18,908	21,957	23,498	17,367	15,062	18,064	17,302	16,292	16,941	15,200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6. 0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07)	1주일전 (05/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9,000	186,400	↑ 7.9	↓ 19.5
	고구마(밤)	10kg	29,800	29,800	30,300	30,000	31,473	↓ 0.7	↓ 5.3
	감자(수미)	20kg	29,600	36,200	28,100	38,750	28,950	↓ 23.6	↑ 2.2
채 소 류	배추(봄)	1kg	700	820	1,225	753	435	↓ 7.0	↑ 60.9
	양배추	10kg	7,400	10,200	12,275	11,175	6,267	↓ 33.8	↑ 18.1
	오이(다다기계통)	10kg	14,000	11,667	14,917	14,000	15,914	0.0	↓ 12.0
	애호박	8kg	11,200	10,400	11,450	9,500	12,990	↑ 17.9	↓ 13.8
	토마토	10kg	15,000	16,000	19,850	18,100	18,713	↓ 17.1	↓ 19.8
	당근	20kg	31,600	32,000	28,000	29,800	32,473	↑ 6.0	↓ 2.7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10,000	717,500	820,000	832,000	↓ 13.4	↓ 14.7
	풋고추	10kg	35,200	40,400	52,800	38,950	40,043	↓ 9.6	↓ 12.1
	마늘(깐마늘)	20kg	175,000	175,000	175,000	104,000	111,467	↑ 68.3	↑ 57.0
	양파	20kg	15,000	15,000	15,400	14,750	14,430	↑ 1.7	↑ 4.0
	대파	1kg	2,070	2,210	2,420	2,525	1,607	↓ 18.0	↑ 28.8
	파프리카	5kg	21,600	19,400	21,300	22,200	20,807	↓ 2.7	↑ 3.8
	멜론	8kg	28,600	28,400	24,900	26,550	33,775	↑ 7.7	↓ 15.3
	방울토마토	5kg	14,000	14,800	15,900	15,050	14,303	↓ 7.0	↓ 2.1
	수박	1개	14,800	14,600	17,000	14,250	15,075	↓ 3.9	↓ 1.8
과 일	사과(후지)	10kg	37,200	37,000	37,000	45,200	54,189	↓ 17.7	↓ 31.4
	배(신고)	15kg	44,600	44,400	44,000	41,200	53,167	↑ 8.3	↓ 16.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07)	1주일전 (05/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7,000	527,000	526,000	532,000	562,000	↓ 0.9	↓ 6.2
	느타리버섯	2kg	12,200	12,600	13,600	13,600	12,080	↓ 10.3	↑ 1.0
	새송이버섯	2kg	7,200	7,600	8,350	8,400	8,080	↓ 14.3	↓ 10.9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696	7,542	7,413	6,475	6,106	↑ 18.9	↑ 26.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20	2,062	1,779	2,179	2,080	↓ 7.3	↓ 2.9
	닭고기	1kg	5,708	5,690	5,081	5,048	5,533	↑ 13.1	↑ 3.2
	계란(특란)	30개	5,402	5,402	5,263	5,808	5,809	↓ 7.0	↓ 7.0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7	0.0	↑ 6.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6. 0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07 천원	5,915 천원	4,041 천원	↓ 0.1	↑ 46.2
	거세	7,434 "	7,274 "	6,086 "	↑ 2.2	↑ 22.1
송아지 (6~7월)	암	3,243 "	3,167 "	1,762 "	↑ 2.4	↑ 84.1
	수	4,031 "	3,866 "	2,479 "	↑ 4.3	↑ 62.6
육우(600Kg)		3,306 "	3,149 "	3,360 "	↓ 5	↓ 1.6
젖소수송아지(7일령)		361 "	336 "	176 "	↑ 7.4	↑ 105.1
돼지(110kg)		474 "	432 "	455 "	↑ 9.7	↑ 4.2
육계(원/kg)		1,378 원	1,257 원	1,551 원	↑ 9.6	↓ 11.2
계란(원/특란10개)		939 "	940 "	1,305 "	↓ 0.1	↓ 28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 28.5

※ '14년 경정(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무논점과 재배’ 못자리 벼농사 시대를 열다

– 육묘이앙 노력 35%, 생산비 21% 절감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

- 나주시에서는 농촌 일손부족 해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못자리가 필요 없는 무논점과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연시회를 5월 31일 동강면 대전리 주영달씨 농가포장에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 벼 무논점과 재배는 육묘와 이앙작업을 생략하고 바로 본답에 파종함으로써 노동력을 35% 정도 줄일 수 있고, 육묘상토 등 농자재 절감으로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배법으로 농업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또한 기존의 직파재배가 잡초발생, 출수 불균일, 도복우려, 생산량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재배기술로써 초기생육이 우수하고 잡초성벼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다.
- 특히, 나주시에서는 직파재배의 최적 매뉴얼 정립을 위해 “농식품부의 주요 곡물·조사료 자급률 제고 사업단”과 공동으로 연시교육을 하고 3가지의 벼 재배법(무논점과, 건답직파, 기계이앙)을 한 단지 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관심 있는 농가들이 교육장으로 활용, 성공적인 직파재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출처 : 나주시

■ 담양군, 벼 병해충과의 전쟁을 선포하다!

- 담양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벼농사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병해충 관리를 위해 벼 병해충 발생 예찰 및 관찰포를 운영한다.
- 군은 예찰포와 관찰포의 운영을 통해 모내기부터 수확기까지 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측하고 방제 대책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해 활용할 계획으로, 천변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0.2ha의 예찰포를 설치하고 무정면 2, 수북면 3, 대전면 1개소 등 각 0.3ha 규모의 관찰포 6개소를 설치, 6~9월까지 운영한다.
- 특히 군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애멸구와 벼멸구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실시할 방침으로, 해충 다량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분석된 병해충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전달하고, 특히 외래, 돌발 병해충이 다량 발생할 경우 농업 관련 기관이 연계해 적기에 방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올해 예찰포 및 관찰포 조사대상은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병 10종과, 벼잎벌레, 벼잎굴파리, 벼줄기굴파리, 애멸구, 끝동매미충, 벼멸구, 흰등멸구, 벼물바구미 등 해충 12종이다.

* 출처 : 담양군

■ 고흥군, 쌀 귀리 수확 본격... 농가소득 한몫

- 고흥군은 블루베리·토마토 등과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되어 주목받고 있는 쌀 귀리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올해 첫 쌀 귀리 작황은 잦은 비가 내려 예년이 비해 수확량이 다소 떨어져 1ha당 약 70가마(40kg) 정도 생산량을 보고 있으며, 수확한 쌀 귀리는 전량 업체와 계약되어 40kg 1가마당 80,0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쌀 귀리는 보리에 비해 1.8배 소득이 높은 고소득 작물로써 올해는 38ha 면적에서 106톤이 생산되어 총 2억여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 쌀 귀리는 다른 작물에 비해 병해충이 적고 귀리 수확 후 벼농사까지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 고흥군은 그동안 쌀 귀리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농가 재배 시범포 조성을 위한 종자대와 건조기 50% 보조금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겨울철 유희농지를 적극 활용하여 쌀 귀리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쌀 귀리 확대 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효자품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지원과 함께 고품질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한,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 5000프로젝트 사업이 품목별 농가마다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고흥군

■ 화순군, (주)포프리와 523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 화순식품단지에 맥주, 제과 등 가공식품 생산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친환경 가공식품기업인 (주)포프리와 523억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화순식품단지가 6차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화순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구충곤 군수, 김희수 (주)포프리 대표 등이 함께한 가운데 총 투자비 523억원, 일자리 창출 560명 규모의 '친환경식품 생산사업' 투자협약을 맺었다.
- 협약에 따라 (주)포프리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능주면 만수리 화순식품단지 83,532㎡ 부지에서 친환경 식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두유·반찬·김치·제과·한과·커피·계란푸딩·맥주·카놀라유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게 된다.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과 엄격한 생산·가공 공정을 결합해 최고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 또한, 자사가 보유한 140여대의 물류차량으로 살균 포장된 제품을 24시간 내에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1일 배송시스템(one-day delivery system)'을 운영함으로써 제품의 신선도와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지난 2000년 설립된 (주)포프리는 유전자조작 곡물, 항생제, 비린내, 바이러스, 세균 등 네 가지가 없는 식품을 생산한다는 취지에서 포-프리(four free)로 출발했다.
- (주)포프리는 이번 투자를 통해 화순식품단지 일대를 관광자원과 식품개발을 위한 작물로 바꿔 농가의 수익구조를 만들고, 영화관과 휘트니스센터 등 문화와 여가가 더해진 복합식품산업공간으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머잖아 6차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화순군

■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쌀

- 전남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11회 연속 선정 -

- 전남 강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 ‘201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강진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강성종)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호평’이 2006년부터 11년 연속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 ‘프리미엄 호평’은 강진군을 대표하는 쌀로 대한민국 12대 브랜드 쌀에 7회 수상했으며 2015년에도 은상을 수상했다. 군은 2006년부터 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왔으며 보급종 종자, 육묘, 본답관리 및 수확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농협, 농업인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 파종량을 7~8kg인 관행 재배의 절반 수준인 4kg으로 제한하고 평당 주수도 80~85주를 심는 일반 쌀농사와는 달리 60주를 기본으로 심어 쌀의 품질을 높이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 관리와 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프리미엄 호평쌀은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일반쌀(6~8%)보다 낮고 완전미율도 98%이상으로 적기수확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GAP)인증 시스템을 갖춘 최신식 도정시설에서 연중 햅쌀의 맛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에 일반 쌀에 비해 맛이 월등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등 품종 혼입율, 전문패널 식미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노지채소 품질향상

- 10억 3천여만원 예산투입, 친환경 약제 공급 -

- 최근 잦은 비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및 연작 피해 예방을 위해 해남군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한 노지채소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해남군은 일부 지역에서 노지채소의 품위 저하와 생산량 감소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아미노산 등 품질향상 약제 3억 3,0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 5억원, 마늘·양파 연작 피해 예방 약제 1억 9,800만원 등 총 10억 2,8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특히 해남군 50%, 농협에서 50%를 부담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 아미노산, 칼슘제 등 친환경농자재를 농가에 공급,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해남군의 노지채소 재배면적은 7,500ha로 연간 1,74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가을·겨울배추, 마늘·양파·고추는 정부의 주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겨울배추는 전국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최대 노지채소 생산지이다.
- 군 관계자는 “노지채소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반조성과 함께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지역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출처 : 해남군

■ 장성군, 영양듬뿍 액상규산으로 고품질 쌀 키운다

- 2,700농가, 3,200ha에 액상규산 공급시작...올해 농가 신청한 전량 지원 확정 -

- 장성군은 영농철이 시작에 맞춰 고품질 쌀을 생산을 위해 미질 향상과 쓰러짐방지 효과가 있는 벼 영양제 ‘액상규산 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해 지원규모는 공급을 희망하는 2,700농가가 3,200여ha에 사용할 수 있는 20,000여개로 농가들이 신청한 전량을 지원될 예정이며, 군은 액상규산 구입비의 50%를 보조한다. 올해 공급량은 연간 3회까지 살포가 가능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난 규모이다.
- 액상규산은 수용성 규산을 원료로 사용하는 병해충관리용 자재로써 병해에 의한 벼의 비정상적인 생육을 억제하여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며 벼 쓰러짐 예방과 도열병 및 멸구 등 병해충 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커 많은 농가들이 사용해 온 농자재이다.
- 군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초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품질 좋은 농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 2개의 공급업체를 선정해 제품단가를 낮춰 6천만원 가량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 또한 액상규산을 농촌진흥청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제품으로 제한해 친환경 및 일반벼에 모두 살포할 수 있도록 했다.
- 군 관계자는 농가들에게 안전 사용기준인 연간 3회 정도의 살포 횟수를 준수하고 농약과 혼용시에는 액상규산을 먼저 물에 섞은 뒤 농약과 섞어서 사용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장성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담양 『죽향』 딸기 국외 시험재배 시도

- 딸기묘 수출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FTA 대응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담양 「죽향」 딸기 품종의 국외 시험재배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2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했다.
- 이날 업무협의회에서는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이철규 박사의 「죽향」 딸기의 품종 특성 및 재배시 유의사항, 딸기묘 수입업체인 박남홍 대표의 베트남 원예산업과 농장 현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홍아정 연구원의 국내육성 딸기 해외적응성 시험재배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해 정보를 공유했다.
- 아울러, 「죽향」 딸기 연구동향과 농가 재배현장 확인을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딸기 원원묘 육묘장과 담양 「죽향」 딸기 재배농장을 방문했다.
- 「죽향」 딸기 국외 시험재배 지역인 베트남 람동성 달랏은 베트남 남부의 관광도시이며 해발이 1,450m, 연평균 온도 20℃, 강수량 1,800mm로 딸기·채소·화훼 등 고랭지 농업의 최적지이며 연중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죽향」 딸기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등 화훼류가 베트남 지역에서 시험재배와 적응성 시험에 성공하게 되면 로열티 계약을 하고 현지반응에 따라서 확대 재배할 계획이다.

- 베트남 내에서 수입딸기는 자국에서 생산한 딸기보다 2~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박혜량 과장은 동남아 지역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농산물이 고급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어 부유층을 대상으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업체 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전망이다.
- '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 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 정부는 민관 협력(정부 3.0)을 바탕으로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국 식품규격(GB, GuoBiao) 합의('16. 2. 24.), 국내 삼계탕 수출업체의 중국 정부 등록('16. 5. 9. 11개 작업장),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16. 5. 17.) 및 통관당국 적용 규격 최종 확인('16. 5. 26.) 등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모두 마무리 지었다.
-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삼계탕 중국 수출 길 개척은 수출 확대의 의미 뿐만 아니라, 한·중 정상외교와 한·중 FTA 성과를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하며,
- 현재 진행 중인 수출업체 별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수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지침서를 마련 (6월)하여 정부 검증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계로 하여금 수출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 작업장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 지도·감독 등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중 정상외교의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현지 삼계탕 홍보, 판촉 행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로, '15년도 삼계탕은 미국·일본·대만 등 국가로 2,080톤 9백515천불 가량이 수출되었으며, 업계는 삼계탕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첫 해 (1년 간) 우선 3백만불 가량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전남지역 시설재배 수국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관리 요령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시설재배 수국의 주요 병해충은 흰가루병, 차응애, 대만총채벌레이며, 방제가 반드시 필요함
- 주요 병해충 방제시기 및 적용약제(2014~2015)

시 기	2	3	4	5	6	7	8	9	10	월 동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생육단계	발 아 기		줄 기 신 장 기		개 화 기		발 아 기		화 아 분 화 기	
흰가루병				발 생 시 기					발생시기	
차 응 애		발 생 시 기								성 충
대만총채벌레		↓ ↓ ↓		↓ ↓ ↓				↓ ↓ ↓		성 충
		발 생 시 기								

<적용약제>

- 흰가루병 : 폴리옥신비(수), 디페나코나졸(유), 풀루퀸코나졸(수)
- 차 응 애 : 아바멕틴(유), 밀베멜틴(유), 비페나제이트(액상), 아미트라즈(유)
- 대만총채벌레 : 디노테퓨란(수), 아세타미프리드(수)



흰가루병



차응애



대만총채벌레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수국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로 상품성 및 소득 향상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시설재배 수국은 온도관리 등의 이유로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흰가루병 등 병해 발생이 많음
- 흰가루병은 생육중기(5~6월)에 발생이 많으며, 전정 이후 생육후기(9~10월)에도 발생을 하므로 적용약제를 각각 1회 살포해야 방제가 가능함
- 차응애는 생육초기(3월) 밀도억제가 중요하며, 1회 억제방제로 억제가 가능하지만, 중기에도 소량 발생하므로 추가적으로 1회 살포가 필요함
- 대만총채벌레는 발생량이 많고 꽃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약제방제가 쉽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살포해야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생육초기·중기·후기 각각 3회씩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밀도억제가 가능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최덕수, 고숙주

■ 녹두, 황금, 방풍, 아스파라거스를 가해하는 해충종류 정보제공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소면적 재배 작물별 가해하는 해충종류, 발생시기 및 피해증상

- 녹두 해충종류 : 가로줄노린재, 아카시아진딧물, 차응애,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파밤나방 등 8목 35종
- 황금 해충종류 : 대만총채벌레, 알락수염노린재 등 5목 14종
- 방풍 해충종류 : 꽃노랑총채벌레, 목화진딧물, 애물결들명나방, 양배추가루진딧물, 홍줄노린재 등 9목 24종
- 아스파라거스 해충종류 : 공벌레, 알락수염노린재 등 5목 11종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공벌레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작물별 가해해충의 종류, 발생시기, 피해양상 및 발생정도 등 정보 제공으로 해충피해 최소화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작물별 가해해충 종류, 발생시기, 피해양상을 참고하여 높은 밀도로 발생할 경우에 분류동정 및 방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마경철, 고숙주, 김효정

■ 국내 육성 딸기 ‘설향’ 보급묘 성능 효과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딸기 묘 증식단계(농업기술원) : 원원묘 → 원묘 → 보급묘

- 증식단계 보급묘와 자가 보유묘의 성능 비교

○ 성능효과 : 보급묘가 자가 보유묘에 비해 과일 품질과 수량 증가(18% 증)

- 1화방 출퇴기 및 수확기 : 보급묘가 자가 보유묘에 비해 1~2일 정도 빠름

- 정식 후 시들음병 증상 발병 : 보급묘 발병은 없었으며, 자가 보유묘 10~30%

- 1화방 평균과중 : 보급묘 33.5g 자가 보유묘 29.3g



수량 지수	118 (5,104kg)	100 (4,313kg)
구 분	보급묘	자가 보유묘
제1화방 출퇴기	'14. 10. 20.	'14. 10. 22.
당도(*Bx)	12.1	11.5
평균과중(g/개)	33.5	29.3
수량(kg/10a)	5,104	4,313
시들음 발병도(0~9)	0	3~5

【딸기 보급묘 과일 형태 및 수량 비교(201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수량(10a) : 18% 증(보급묘 5,104 → 자가 육묘 4,313kg/10a)

- 수량 증가분(10a) : 791kg(1,447천원)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 구입 비용(육묘트레이24구) : 1,500,000원(150원/주 × 10,000주/10a) - 출하박스(스티로폼) : 237,300원(791개 × 300원) - 노력비 : 200,000원(50,000원 × 4일) - 계(A) : 1,937,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증가분 : 3,384,689원(791kg × 4,279원) · 조수입(10a) : 21,840,016원 ← 18,455,327원 - 계(B) : 3,384,689원
○ 추정 수익액(B-A) = 1,447,389원	



【보급묘와 자가육묘 뿌리비교】



【보급묘와 자가육묘 과일비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딸기 묘 증식단계 : 보급묘(농원기술원에서 증식, 보급한 건전묘)
- 딸기 육묘기 병해충 발병 검정 : 주기적 관찰 및 분석(PCR검정)
- 품종 및 육묘방법 : 설향, 고설베드 육묘(트레이 24구, 점적관수)
- 모주정식 : 3월 중순, 자묘(런너) 유인 : 5월 하순 ~ 7월 중순
- 정식기 및 재배방법 : 9월 중순, 수경재배(코코피트 배지)
- 화방별 꽃 작업 : 화방당 6개 정도 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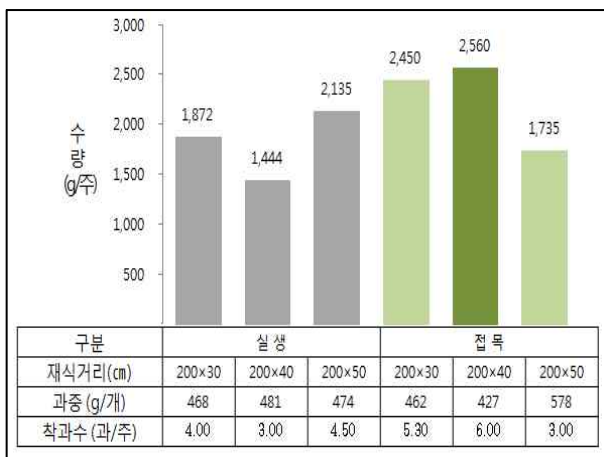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종분, 이아성, 장미향, 윤봉기

■ 무가온 하우스 재배 작형별 단호박 접목묘 정식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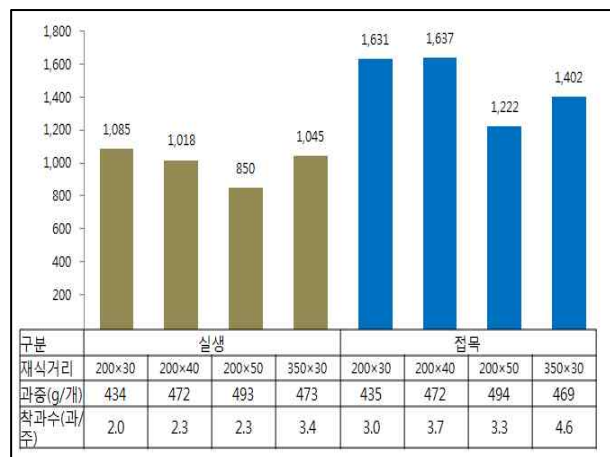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무가온 하우스 재배에서 단호박 접목묘에 적합한 정식시기

- 반축성 작형은 2월 상순에 정식하면 착과수 1.1개/주, 수량은 33% 증가함
- 억제 작형은 8월 하순에 정식하면 관행대비 착과수 1.6개/주 증가됨



【반축성 재배】



【억제재배】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정식 초기(2월 상순, 8월 하순)의 저온과 고온 조건에서 생육 양호, 특히 억제 재배에서 10월 하순~11월 상순 급격한 온도 변화 등 환경 변화 견딜 우수

○ 조수입 증가 : 1년 2회 재배시 10a에 관행대비 7,280천원 증가

- 단가 상승 : 반축성 재배 25,000원/4kg, 억제재배 35,000원/4kg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수확 증가량 수확·선별·포장 : 84kg/1인×3일×40,000/일=120,000원 - 포장 박스 : 770원/박스(4kg)×21개=16,170원 - 계(A) : 136,170원	○ 증가되는 이익 - 재식 주수 감소 : 312주×450원 = 140,400원 - 결순제거, 수정, 적과 작업 노동력 감소 : 312주/1인×4일×40,000/일=160,000원 - 수확량 증가 : 84kg×6,250원 = 525,000원 - 계(B) : 200,000원
○ 추정수익액(B-A) = 689,230원(반축성 기준)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접수는 보우짱, 대목으로 곡성재래 혹은 신토좌를 이용한 맞접 실시
- 반축성 작형에서 접목묘를 이용할 경우 재식거리 200×40cm(3줄재배)로 정식하면 세력이 우수한 접목의 잎 겹침 현상을 줄여주고 결순제거와 수정작업이 용이하게 됨
- 억제 작형은 350×30cm(2줄재배) 재식거리로 정식하는 것이 겨울철 낮은 일조량 조건에서 광 이용률을 향상시켜 안정착과와 과비대에 유리함



【200×40cm(3줄, 반축성 재배)】



【350×30cm(2줄, 억제재배)】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장미향, 이아성, 서종분, 윤봉기

■ 보성 청년농부, 방울토마토 생산비 25% 절감에 도전한다

- 전남농기원, 작업레일, 저압포그 등 생산비 절감 시스템 구축지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방울토마토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농가를 금년에 양성한다고 밝혔다.
- 전남농기원 생산비절감팀이 최근 5년간 방울토마토 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10a당 생산비가 2011년 1,450만원에서 2015년 1,845만원으로 27%나 상승했다. 특히 전체 생산비 중 28%를 차지하는 노력비는 47%나 증가했고, 24%를 차지하는 광열동력비는 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도 있지만 시설하우스 내부에서 농가들이 대부분의 농작업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고, 연료 손실이 많은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남농기원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패키지 기술을 도입 해 성공한 경영모델 농가를 양성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작년도부터 생산비 절감 모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에 방울토마토 생산비 절감모델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보성 싱싱농원 정경모(36) 대표는 2010년에 귀농한 농촌 청년사업가로 작년도에 전남농기원에서 실시한 생산비 절감 모델 경진대회에서 작업레일과 저압포그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생산비를 25% 절감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정대표가 금년에 전남농기원의 지원을 받아 실증투입하게 되는 생산비 절감 기술은 수확 및 자재운반 등 하우스 내부 이동작업에서 발생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작업레일을 설치하고, 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병해충 방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저압포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 여기에 현재의 낮은 베드를 높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온풍기 덕트를 베드 아래에 위치시켜 공기와 작물뿌리 부분의 난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배기열 회수장치를 설치하여 열손실을 최소화 하게 된다. 또한, 한 줄기 재배가 주를 이루는 방울 토마토에서 두 줄기 재배를 통하여 묘목을 기르는 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 생산비 절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방울토마토 생산비절감 패키지 기술 도입 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수량증대와 품질향상 효과 까지 기대된다.”며, “주기적인 농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반드시 성공모델로 양성하고, 생산비 절감 시스템 도입 후 투자대비 절감액을 수치화 하여,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또는 희망농가 들이 경영혁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콩 생산비 절감 모델」 실증추진

- 지역특성에 맞게 재배법 개선 및 첨단기계 적극 활용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콩 생산비 절감 모델 실증시험을 무안군 운남면에서 올해로 3년째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남부지역의 토질과 작형 특성이 감안된 콩 다수확 및 기계화 기술의 개선과 확산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2014년 2ha를 시작으로 2015년 5ha, 금년에 13ha로 확대 실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 올해에는 수량이 많으면서 기계수확이 수월한 해품콩 선택, 경운하기, 밑거름 정량 주기, 기계과종과 제초제 동시살포,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관리, 콤바인 수확, 간편 건조 등 최대 수량 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한다.
- 본년 실증 내용은 작년의 문제점을 보완한 기술로 ha당 수량 3.5톤 투입노력 133시간을 기대하고 있다.
- 작년 실증에서 ha당 수량은 2.8~3.3톤으로 전국 평균(1.8톤)보다 56~83% 많고, ha당 투입노력은 136~148시간으로 일반 농가(197시간)보다 31~25% 줄어 주변 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연구사는 이러한 우수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면 30% 내외인 식용 콩 자급률을 2020년까지 정부 목표인 4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앞나물용 식방풍」 연중생산 유기재배법 개발

- 혼합유기질 비료 시용과 벚짚피복 재배시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소비자들로부터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약용작물 중 앞나물로 소비가 많은 식방풍(갯기름나물)의 고품질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식방풍(갯기름나물)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감기와 두통, 발한, 해열, 거담, 관절과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리작용으로 뿌리가 한약재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식방풍 고품질 유기재배법은 혼합유박퇴비를 380kg/10a 뿌리고 앞나물 재배시 생산량이 1,260kg/10a로 표준비료(N-P-K=20-12-10kg/10a)에 비해 11%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함량도 11ppm 향상시킬 수 있다.
- 또한, 보릿짚이나 벚짚을 절단하여 피복재배시 잡초발생이 70~75% 경감되는 효과로 나물용 안정생산에 유리하였다. 현재 우리도 재배면적이 160ha로 전국의 91%이고 앞나물 생산량은 6.5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여수·고흥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 전남농기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연구사는 식방풍 유기재배 기술인 “혼합유박 비료시용과 벚짚절단 피복재배에서 앞나물 수량이 많았으며 품질도 향상되어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약재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품질 유기재배법을 조기에 확산·보급시키기 위하여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 버려지는 감자 부산물로 한우 육량 늘린다

- 알칼로이드 성분 추출... 일당증체량 29% 증가, 비육기간 단축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버려지는 감자 잎과 줄기를 활용해 한우 육량을 늘릴 수 있는 천연 사료첨가제를 개발했다.
- 우리나라 한우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은 2003년 55.1%에서 2015년 84.6%로 올랐지만, 육량등급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 양은 점점 줄고 있다.
- 실제 A·B·C 3개 등급으로 나뉘지는 육량등급 가운데, 같은 기간(2003~2015년) A등급 출현율은 16.9%p 줄었고, C등급 출현율은 14.9%p 늘었다.
- 농촌진흥청은 감자 줄기와 잎을 말리고, 이 분말을 열수가공해 알칼로이드 성분을 추출했다.
- 알칼로이드 성분은 식물체에서 얻은 기능성 화합물이며, 작은 성분으로 높은 생리적 효과를 낼 수 있다.
- 이렇게 만든 첨가제를 비육후기 한우 103마리를 대상으로 60일간 실험한 결과, 사료에 첨가제를 섞어 먹인 한우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소에 비해 일당증체량은 약 29%, 등심단면적은 약 2.4cm² 늘었고, 등지방두께는 약 0.6mm 줄었다.
- 따라서, 감자부산물 사료첨가제를 먹이면 비육 기간을 15일 가량 앞당길 수 있다. 또, 등심단면적이 증가하고 등지방 두께가 줄면서 도체 성적도 개선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 했으며, 산업체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복숭아 관리 병해인 탄저병 주의하세요

- 농촌진흥청, 탄저병 감염 과실 없애고 발생 초기에 방제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복숭아 관리 병해인 탄저병 발생시기가 다가와 봉지를 씌우지 않고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복숭아 탄저병은 과일 껍질에 발생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로 식물병원성 곰팡이에 의해 발생한다.
- 병원균의 적정 생장온도는 25~28℃이며, 비가 잦으면 더 많이 발생한다.
- 탄저병은 주로 과실에서 발생하는데 과실 표면을 함몰하며 병이 진행되고, 과실 내부는 갈색으로 변하고, 표면에는 주황색 혹은 분홍색의 분생포자가 형성된다.
- 지난해 8월 조사 결과, 복숭아 과실에 봉지를 씌운 농가는 탄저병이 2% 정도 발생한 반면,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50% 정도 발생했다.
- 복숭아 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감염된 과실을 과원에서 없애 탄저병균의 밀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다습한 환경에서 탄저병의 발생이 많으므로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한다.
- 탄저병 예방을 위해 봉지 씌우기를 실시하는 복숭아 재배농가는 봉지를 씌우기 전 살균제를 1~2회 정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 탄저병이 발생했다면, 발생 초기 살균제를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뿌려야 하며, 비가 오기 전 살균제를 뿌리면 탄저병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
- 또한 장마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탄저병이 발생하는데 이때 탄저병균이 빗물을 타고 과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장마기 전·후로 방제해야 한다.
- 현재 복숭아 탄저병 방제용으로 등록된 살균제는 약 17종으로, 동일한 계통을 반복적으로 뿌리는 것보다 2가지 이상의 계통을 번갈아 가면서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백창기 연구사는 “복숭아 탄저병은 과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병해로, 발생 초기에 감염된 과실을 없애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배 봉지 씌우기 전 병해충 방제해야

- 특히 검은별무늬병과 각지벌레류 방제 철저히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배 재배 시 봉지 씌우기 전 반드시 약제 방제를 실시한 뒤에 봉지를 씌워야 검은별무늬병과 각지벌레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배 검은별무늬병은 수출 배 불합격 과실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나타난 병해로, 병원균이 잠복해 봉지를 씌우기 전의 어린 과실에는 병반이 보이지 않으나 수확해보면 과실 껍질에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 각지벌레는 봉지를 씌운 과실에 주로 침입하는데, 피해를 받은 과실은 벌레가 빨아먹은 부위가 움푹움푹 들어간 기형과가 되고, 배설물은 그을음병을 일으켜 과실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 올해는 배꽃이 핀 이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의 경우, 5~7일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비가 내렸으며, 또한 지난해에 검은별무늬병 발생도 많아 병원균의 밀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 검은별무늬병은 비가 잦으면 더 많이 발생하기에 일기 예보를 참고해 강우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 특히, 봉지 씌울 무렵에 비가 오면 봉지를 씌운 뒤에도 검은별무늬병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강우 후에는 3일 이내에 반드시 치료용 약제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 현재는 가루깍지벌레가 알에서 부화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약제 방제 효과가 가장 높다.
- 깍지벌레류의 발생은 연간 3회 정도 발생하는데, 1세대 성충이 6월 중·하순에 발생해 봉지 내 과실로 이동한다.
- 따라서 봉지 씌우기 전에 깍지벌레류를 방제해야 하며, 방제를 위해서는 약제가 충분히 묻도록 1,000㎡(10a)당 250~300L 수준으로 전문 약제를 뿌려야 한다.
- 특히 깍지벌레가 많이 관찰된 나무는 충분한 양의 약제를 뿌려야 하며, 봉지를 씌운 후에도 2차 살포를 실시해 벌레가 봉지 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최장전 연구관은 “농가는 배 봉지를 씌우기 전 검은별무늬병과 깍지벌레류 방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봉지를 씌운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봉지 씌우기 전에 약제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검은별무늬병 피해 잎

8. 정책 동향

◆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 24일까지 연장

- 전남도, 벼 농가 순 보험료의 80% 지원 -

- 전라남도는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당초 5월 말에서 6월 24일까지로 연장됐다고 2일 밝혔다.
- 이는 모내기와 발작물 수확 등으로 바빠 가입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가운데 전라남도가 지리적 자연재해 취약성 등을 감안, 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가입 기간 연장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 전라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원을 확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ha(3천평)당 순보험료는 약 36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7만 2천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 벼 보험은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 또 올해부터 무사고 시 농가가 낸 보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시·군별 '전략회의'와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해 왔다.

* 출처 : 전라남도

◆ 읍·면·동 단위 지역 농업정보를 한 눈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지역별, 품목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를 '16. 6.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의 세부적인 지역 농업현황이 없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거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 5개년 농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농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경영체 현황을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도 기준 전국 1,589,795 농업인 경영체(농업법인 제외)가 등록되어 있다.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은행·증권사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NPKI)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 이를 통해 전국적인 농업 상황과 해당 지역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농업에 관한 상세한 농업경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그 동안 농업관련 자료는 시·군 또는 시·도 수준의 경향자료 또는 추가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해 왔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읍·면·동의 세부 농업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즉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때 이른 폭염, 농작물·가축 안전관리 대책 준수 당부

- 월동 병해충 발생 증가, 3일 이상 발생 빨라 피해 우려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고온현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농작물 및 가축의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6~2015년)간 폭염발생일이 평균 11.3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7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여름철 후반 라니냐가 발달할 것으로 전망돼 무더위가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름철 고온기는 가뭄과 대기 중 습도 부족으로 농작물 생리장애와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 고온이 지속되면 작물에 수분이 부족해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워지고, 고추·토마토 등 시설작물은 꽃가루 피해로 착과 불량, 낙과, 과실 발육저하 등의 생육장애가, 과수는 과실, 잎 등의 햇빛데임 현상(일소, 엽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또한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 산유량 감소, 산란율 저하 뿐 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폐사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따라 고온 및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

- 과수원은 벚짚, 풀, 퇴비 등으로 밭 표면을 덮어 토양 수분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하고, 살수기 등을 이용해 적정 물주기를 한다.
- 시설하우스는 측창, 천창 개방 등 환기를 철저히 하고 이동식 살수기 등을 이용해 작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비가림재배 포장은 차광망 설치로 고온피해를 예방한다.
- 채소는 탄저병, 담배가루이 등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고온으로 갈슘, 봉소결핍 등 생리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작물의 생육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료를 선택해 엽면시비를 실시한다.



▲ 축사 내부 스프링클러



▲ 페트병을 활용한 점적관수

- 축사는 환기창, 통풍창 등 환기구를 점검 정비하고 축사내부의 태양열 차단을 위한 차광망 등을 설치하며, 가축은 양질조사료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먹이고 축사내부에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환풍 장치 설치 및 가동을 준비해 열사병,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
- 뿐만 아니라, 올 겨울과 봄철에 이상고온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제와 시설하우스 내 채소작물에 피해를 주는 응애류, 총채벌레를 정밀 예찰하고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 올 5월까지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9℃ 높게 나타나 월동 해충이 3일 이상 빨리 발생했고, 갈색날개매미충은 유충시기에 광역방제기나 무인헬기를 이용해 산림과 농경지를 공동 방제해야 한다.
- 과채류와 장미 시설하우스에 발생하고 있는 총채벌레와 응애류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일주일 간격으로 적용약제 살포가 필요하다.
- 특히 6월에는 배·복숭아 과수원에서 순나방, 굴나방, 검은별무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한 방제력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응 필요하다.
- 품목별 방제력 정보는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농사로-농업경영-경영기술-품목별 매뉴얼)에 접속해 검색하면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박동구 재해대응과 과장은 “기상청에서 이상고온과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을 내놓고 있으므로,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농업인들은 한낮(12~17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9. 해외 농업정보

◆ 전남도 육성 ‘해금’ 골드키위 해외에서 시험재배

- 전남도 육성 해금 골드키위 해외 품종 수출 토대마련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2007년 전라남도가 개발한 ‘해금’ 골드키위가 해외에서 시험재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농업기업과 해금 골드키위 해외 품종 수출을 위한 사전 시험재배를 위한 계약을 지난 4월에 체결하였다.
- 이번 시험재배는 향후 5년간 프랑스를 비롯한 칠레·뉴질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만일 이번 시험재배를 통해 현지의 적응성이 성공적일 경우 현지 기업과 전남도간 추가적인 품종 이용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양산 체계로 돌입할 계획이다.
- 이번 국외 시험재배 계약은 전남도의 농업연구 성과를 국내외적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향후 성공적인 시험재배와 품종수출 계약이 성사된다면 2020년 이후 연간 20여억원의 로열티 수입이 기대된다고 농업기술원측은 밝혔다.
- 다만, 품종 수출이 가시화되고 해외에서 생산이 된다면 국내 역수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기업과 엄격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생산 과일과의 경쟁을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안전관리 역량 전수로 농식품 한류 이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정부 3.0 구현 및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5.30.~6.3.까지 아시아 지역 12개국 안전관리 관계관 23명을 초청하여 농식품 안전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수는 아시아국가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선진화된 분석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 아시아 농식품 안전관리 관계자 연수는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 그동안 12개국 98명이 이수하였다.
- 초청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우리 농산물의 안전관리 관련 체계 교육, 분석 실습 및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 이론 교육에서는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 현황,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등과 함께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GAP친환경 인증제도, 원산지 관리제도 등의 다양한 업무를 소개한다.
- 또한,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 방법에 대한 실습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며,
- 농산물 생산농장, 가공, 포장 시설 및 판매업체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일련의 안전관리 절차를 배우게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6. 07.(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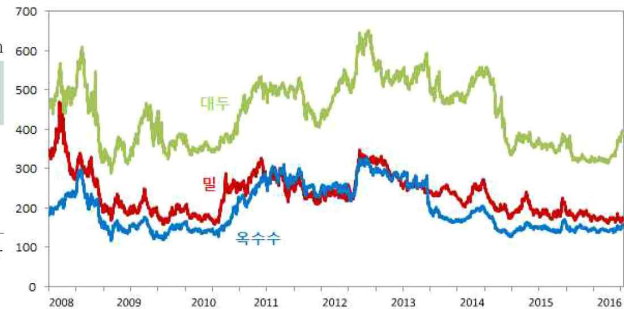
미국 중서부 지역의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옥수수 선물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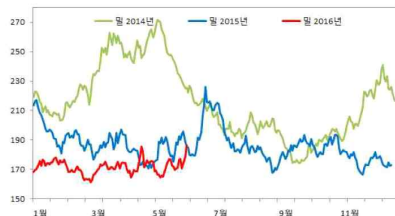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06.06)	전일대비	전월평균 ('16.5)	2015 평균
밀	186.43	▲4.5%	188	186
옥수수	168.18	▲2.9%	148	148
대두	416.45	▼0.9%	353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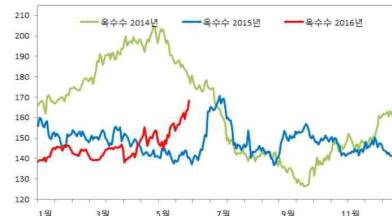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밀 선물가격은 현물 이자율과 함께 4번째 장까지 연속적으로 가격이 올랐음. 기술적 매수와 매도커버로 인해 부셸 당 \$5 이상 올랐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의하면 7월 물 밀 선물가격은 \$5.07에서 6주간 오르고 있음. 이번 주 대부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남부 평원의 수확이 속력을 낼 것으로 기대되 됨.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적색연질밀의 경우 부셸 당 \$5.05에서 약 8센트 정도 상승하였고, 적색경질밀의 경우 \$4.79에서 약 5센트 정도 상승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높은 기술적 매수와 이번 주간 미국 중서부 지역의 덥고 건조한 날씨에 대한 염려 그리고 높은 수출 수요로 인해 옥수수 선물가격은 상승하였음. USDA의 주간 수확량 진행 보고서에 의하면 Good/Excellent 등급의 옥수수 72%를 예상한 정부의 초기 교역량은 지난 주 이후 변하지 않았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7월 물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4.24에서 약 6센트 상승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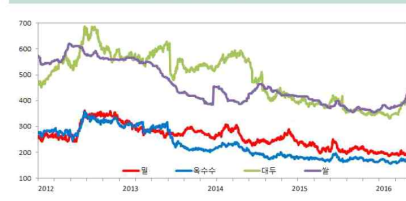


증가된 수출 수요의 높은 기대치는 남아메리카 대두 공급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음. 기술적 매수와 에너지를 포함한 다른 상품들의 강세에 지원이 추가 되었음. 그러나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7월 물 대두와 대두박의 가격은 큰 차이 없는 수준임. USDA에 의하면 개별 수출자들은 미국산 대두를 125,000톤 가량 판매하였음. USDA의 주간 수확량 진행 보고서에 의하면 파종 된 대두 중 84%가 수확되었고, 그 중 71%가 Good-Excellent등급 일 것이라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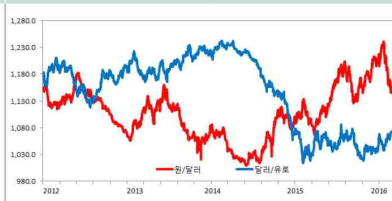
관련동향

- 밀 수출 프리미엄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높은 단기적 수요로 인해 변함없는 대두 프리미엄
- 6월 국제유가는 나이지리아 생산 차질 지속, 미 쿠싱지역 원유재고 감소 추정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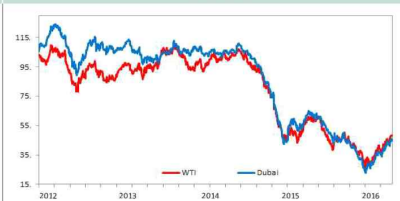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4	▲2.0%	환율	원/달러	1,186.5	▼0.5%
	옥수수	185	▲0.5%		달러/유로	1.1356	▲1.8%
	대두	436	▼1.1%	국제유가	WTI	49.69	▲1.1%
	쌀	427	－		Dubai	45.91	▼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7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6.03(수출가격), '16.06.07(환율), '16.06.0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전남도, 7월 29일까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4개 품목 -

- 전라남도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FTA 피해 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4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당근·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 및 사업장·토지 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여야 한다.
-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폐업지원금은 과수 등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신청 내용에 대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올해 11월부터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88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